



남원자원봉사센터, 에너지 절약 실천 캠페인 실시

남원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안보 위기 극복과 에너지 절약 실천 확산을 위해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8일까지 '자원안보 위기 극복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남원시 자율방범연합회, 남원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원광대학교 학생 등 100여 명과 관내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이 참여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알렸으며, 지난 춘향제 기간 행사장 곳곳에서 현수막과 배너를 활용해 일상 속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을 홍보했다.

이와 지난 18일에는 센터 교육실에서 열린 '희망 온기나눔 후원물품 전달식'과 연계해 캠페인을 이어갔으며,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센터 운영위원장 및 관내 사회복지시설 3개소 관계자 등 8명은 생활 속 에너지 절약과 탄소중립 실천에 뜻을 모았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고립소방관 비상탈출 집중훈련 실시

남원소방서는 식정 119안전센터와 구조대가 재난 현장 활동 중 돌발 위기 상황에 대비해 '고립소방관 비상탈출기법 합동 집중훈련'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합동훈련은 재난 현장에서 대원들이 고립 상황에 처했을 때, 탈출할 수 있는 실전 기술을 배양하여 현장 대응 역량과 안전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전문교육 이수자와 직장훈련 교관의 지도 아래, 총 3개 중목 12개 항목 중 현장 활용도가 높은 탈출 기법을 선정하여 맞춤형으로 진행되었다. 대원들은 이론 및 동영상 교육을 시작으로 부분 훈련을 거쳐 실제 상황을 가정한 집중 실습 훈련까지 단계별로 기술을 숙달했다.

특히, 훈련 감독관과 안전 담당자를 현장에 배치하고 현장 소방활동 교육훈련 안전관리 표 준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훈련을 마무리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소방서,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확대 운영

김제소방서(서장 이종욱)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안전 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운영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신고 대상 시설과 위반행위 기준 등이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소 중심으로 운영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시민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이 대폭 추가됐다. 추가 대상은 △공공주택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오피스텔 △공장 △창고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이며, 전체 신고 대상은 기존 7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됐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파티마신포, 어부바 멘토링으로 효 나눔 실천

지역아동센터와 경로당 방문... 카네이션 전달하며 세대 간 소통 나눔

전주파티마신포가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전주파티마신포는 지난 22일 빛나지역아동센터와 함께 '2026 신포 어부바 멘토링' 2회기로 활동으로 효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신포 어부바 멘토링'은 신포사회회공헌재단이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 사회공헌 사업으로, 신포 임직원과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과 나눔 활동을 함께하며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전주파티마신포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11년째 해당 프로그램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멘토와 멘티들이 직접 만든 카네이션 비누꽃 화분을 들고 지역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또 장기자랑 공연과 함께 떡, 수박 등 다과를 나누며 세대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은 밝은 모습으로 공연과 인사를 전하며 어르신들에게 웃음과 활력을 선사했고, 어르신들도 따뜻한 마음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화답했다. /오상근 기자



양춘제 이사장은 "아이들과 함께 어르신들을 찾아보고 작은 정성을 나눌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세대 간 정을 나누고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파티마신포는 간식꾸러미 지원과 계절감치 나눔,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상생협력대출과 소상공인 지원 등 금융사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다. /오상근 기자

정읍시, 10년 넘게 나눔 실천한 기업 3곳에 '사랑의 열매' 감사패 전달

정읍농업협동조합·정읍새마을금고·태산영농조합법인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정읍시가 지난 22일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꾸준히 기부를 실천해 온 우수 기업 세 곳에 사랑의 열매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희망2026나눔캠페인과 연중 기부에 동참해 지역 공동체 복지를 늘리는 데 힘쓴 기업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 안에 자발적인 기부 문화를 널리 퍼뜨리려는 목적이 담겼다.

이날 영예로운 감사패를 받은 우수 기부 기업은 정읍농업협동조합, 정읍새마을금고, 태산영농조합법인 등 총 세 곳이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에만 2000만원 이상을 기부했다. 특히 10년 이상 꾸준히 나눔을 이어오면서 지역 사회 복지를 증진하는 데 크게 이바지해 왔다.

지금까지 모인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거쳐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이고 있다. 주로 저소득 위기 가정의 생계비를 돕거나 의료비를 지원하는 데 쓰인다. 아울러 고독사를 막기 위한 고립 가구 지원 등 여



러 맞춤형 복지 사업에도 알차게 활용되고 있다. /정읍=김태환 기자



남부안농협, 공동방제단 벼 먹노린재 방제 실시

남부안농협(조합장 최우식)은 지난 22일 오후 3시 남부안농협 경제센터에서 공동방제단(벼 먹노린재) 발대식을 가졌고 부안군 보안·졸포·진서 3개면의 수도작 농경지 인근 해안가 및 하천과 산기슭을 대상 공동방제를 실시했다.

공동방제단은 광역방제기와 드론방제기, 개인방제기를 활용으로 방제 면적 3개면 약 104ha이며,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남부안농협이 주관해 진행했다.

특히나 남부안지역 수도작 농가는 벼 먹노린재로 인해 농산물의 품질이 저하되고, 생산량이 감소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해 주 서식지인 인근 해안가 및 하천과 산기슭 지역에 방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갈수록 피해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적기 공동방제를 실시했다.

최우식 조합장은 "병해충 피해 예방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적기 공동방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해경, 새벽녘 하심 고립객 극적 구조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생덕)는 26일 새벽에 부안군 하심 인근 해상에서 물때를 착각해 고립된 관광객 A씨를 신속하게 구조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5시 25분경, 변산과출소 구조 요원들이 인근 연안 순찰을 돌던 중 어둠 속에서 "살려달라"는 절박한 구조 요청 소리를 인지했다.

당시 고립자 A씨는 육상으로부터 약 100m 떨어진 지점에서 수심 약 2m의 바닷물에 갇혀 자칫 목숨이 위태할 수 있는 건박한 상황이었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경 조개를 잡기 위해 하심을 방문했다가, 물때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순간에 밀물이 차오르면서 고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변산과출소 현장 요원들은 평소 반복해 온 실전형 구조 훈련을 바탕으로 망설임 없이 동력구조보트 등 인명구조장비를 신속히 투입되어 A씨를 안전하게 구조해 안정을 취한 후 안전하게 귀가 조치했다.

박생덕 서장은 "해부질 등 연안 활동을 할 때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임실군, 사회복지담당자 심리적 소진예방 교육 실시

임실군은 지난 22일 윤임면 옥정호 일대에서 관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24명을 대상으로 '심리적 소진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일선에서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는 담당자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심리적 소진(번아웃)을 예방하고 건강한 심리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 복지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마련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봉어성 탐방 등 자연 속 힐링 코스로 구성됐다. 또한 참가자들이 직접 향기를 맡으며 마음을 정화하는 '힐링 디퓨저 DIY' 체험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현장 업무에 지친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고충을 나누고 공감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임실=진종영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양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심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6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전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호지지사 010-6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정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8329-6677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4172-3800
	익산지사 659-9923	고창지사 563-6939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김은주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